

일차의료에서 삶의 질이 뇌혈관질환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

장 혜 미

울산대학교 대학원 의학과

연구 배경: 삶의 질은 건강 증진에 중요한 부분이며, 심혈관 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질환으로 이 두가지 요인 모두 건강 증진에 중요한 부분이다. 삶의 질은 위험행태의 변화 및 교감신경, 신경내분비 학적인 경로를 통해 심혈관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하지만 삶의 질과 심혈관 질환과의 발생을 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과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살펴본 전향 적 코호트 연구는 없었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F-36(Short Form-36-item Health Survey) 한국어판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였으며 삶의 질이 예측인자로서 심혈관질환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방법: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전국 23개 병원 가정의학과에 내원한 자들을 대상으로 총 1,034명이 코호트에 등록하였으며, 코호트 구축 당시 심혈관질환으로 치료받지 않은 대상자들 중 2013년 8월까지 추적조사가 1회 이상 이루어진 49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. 자기기입식 설문지와 연구진의 조사를 통해 연구 대상자의 특징을 확인하였으며, 삶의 질은 SF-36 한국어판을 이용하였다. 심혈관질환의 발생은 의료진이 직접 작성한 증례기록지로 질병발생 유무를 확인하였다. 심혈관 질환 발생을 및 상대 위험도 산출을 위해서 카플란-마이어(Kaplan-Meier) 분석과 콕스 비례위험모형(Cox's proportional hazard model)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은 P-value가 0.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.

결과: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8.0세로 61세 이상이 49.2%였으며, 평균 체질량지수는 24.7kg/m^2 으로 체질량지수가 25kg/m^2 이상인 경우가 38.8%였다. 총 추적관찰기간은 1,285인년(person-years)였으며 추적기간의 평균값은 2.6년이었다. 삶의 질에 따른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을 분석하였을 때, 삶의 질이 나쁜 경우에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다. 이는 나이, 성별, 흡연 및 고혈압, 고지혈증, 당뇨의 과거력을 보정한 후에도 유의하게 나타났다(RR 3.37, 95% CI 1.01-11.32).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을 때도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의미있게 증가하였다(RR 2.25, 95% CI 1.04-4.89).

결론: 삶의 질은 심혈관질환의 발생의 위험 요인으로서, 이는 나이, 성별, 흡연 및 고혈압, 고지혈증, 당뇨의 과거력 같은 위험요인에 독립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.

중심단어: 삶의 질, SF-36, 심혈관질환, 상대위험도